

“호남 목소리 전달해 지역발전 이끌겠다”

순천·곡성 이정현 당선자

전국 최다득표 민심 되새겨 지긋지긋한 호남홀대 해소

7·30 순천·곡성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이정현 당선자는 30일 “국민 여러분께서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이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을 감동스럽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순천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이 확정된 직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 타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꼬를 튼다”며 “독이 무나질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이정현에게 표를 주신 분들은 이정현이 잘나가서 아니라 일단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선거는 끝났고 승자가 어디 있고 패자가 어디 있겠나. 자랑스러운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순천 보은’ ‘곡성 보은’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다닌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을 하늘처럼 받들고 은혜를 갚겠다”고 밝힌 뒤, 취재진 앞에 큰절을 올리고 나서 회의를 이어갔다.

이 당선자는 “이번에 순천·곡성 주민들이 참으로 어느 지역도, 어느 유권자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해냈다”며 “이제 우리가 순천과 곡성을 바꿔나갈 동부권 시대의 개막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시민혁명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누리당 이정현 순천·곡성 당선자가 30일 밤 당선 이 확정된 후 선거사무실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위대한 혁명”이라며 “이번 정치 드라마에 출연한 순천시민과 곡성군민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순천·곡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동서화합의 성지로 떠올랐다고 강조한 이 당선인은 “은 국민이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이 이룩한 위대한 판단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오랫동안 쌓여온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무너뜨려 나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광양만 등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추고도 낙후된 호남과 전남 동부권에 정부와 외국기업을 설득시키고 관련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

며 “낙후된 현실을 생각하면 예산폭탄으로도 부족하고 원자폭탄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남의 인재를 키우고 지키면서 위대한 순천·곡성 주민들의 위대한 뜻을 이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정현 당선인은 ‘박근혜의 입’으로 불릴 정도로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이 당선인은 1958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광주 살레시오고를 거쳐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4년 민주당 구용상 전 의원의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2002년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을 맡아 활동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시절부터 현재까지 박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대연로 장구역할을 해왔다.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임명, 4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호남의 각종 숙원사업을 꼼꼼히 챙겨 ‘호남 예산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에 도전해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아권 단일 후보로 나선 오병운 후보에 석패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부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천 논란 악재 딛고 득표율 60% 넘겨 진정성 증명 ‘속제’...민심의 경고 되새겨야

광산을 권은희 당선 의미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각종 언론의 ‘스포츠타이트’를 받았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 퇴직 한달만에 국회의원 벼지를 달게 됐다.

사법고시 출신 경찰 간부에서 갑작스러운 전라공천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권 당선자는 20여일의 선거기간 동안 여당의 ‘보는 공천’ 비난과 함께 남편의 재산 의혹 등의 악재로 시달려야 했다.

여당은 “한 사람의 정치적 욕망이 사회 정의를 오염시켰다”고 비난했고 당내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4선의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하면서까지 권 후보를 전라공천한 것은 지도부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에 이른 또 한명의 전략공천으로 민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어려운 정치환경속에서도 권 당선자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곳곳을 발로 뛰는 진정성을 보이며 지역민심을 잡는데 노력했고, 그 결과 60%의 득표율을 얻으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하지만, 22.3%의 낮은 득표율을 봤을 때 새정치연합과 권 당선자가 지역 민심

을 잡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체 유권자 16만여명중 권 당선자는 13%인 2만1545명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낮은 득표율 배경에는 권 후보가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의 ‘독단’과 ‘오만’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감(反感)’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 지방선거부터 이어진 중앙당 전략공천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들의 ‘투표 외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를 표방으로만 보고 민심을 우습게 아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 셈이다.

권 당선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힐 때의 정의감을 국회의원 한 자리와 바꿨다는 비판에 맞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권 당선자에 대한 무리한 공천이 새정치연합의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권은희 당선자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득표율 외면할 정도로 정치권에 등을 돌린 지역민심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전략공천’ 후보라는 짐을 벗기 위해서는 참신성과 진정성을 앞세운 의정 활동을 통해 민심을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 민심 심상찮다

새누리당 후보들 전남 3곳 출마 모두 두자릿수 득표율

통진당 장원섭 후보, 광주 광산을 26.37% 득표 ‘선전’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전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광주 광산을 송환기 후보를 제외한 전남지역 3곳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비롯해 나주·화순 김종우 후보가 22.20%의 득표율을,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종호 후보는 18.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17~19대 총선 결과 광주·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여당 후보는 3명(정용화·김광영·김문열)에 그쳤지만, 대부분이 10% 초반대 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

의 득표율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광주 광산에서는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가 26.37%의 득표율을 올리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긴장케 했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민심의 반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터져나온 공천 논란과 지역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연이은 전략공천 등이 반감을 불러온 것으로 보여, 세월호 참사 등의 정국 운영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표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나주·화순의 경우 새정치연합의 반감 속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정치권에 실망한 지역민심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MBC 보도국장 출신...두번째 도전만에 ‘금뱀지’

새정치 유일 수도권 당선 해남 출신 박광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당선된 수원 정 의 박광은 당선인은 “우리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행복을 정치활동의 첫째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 2008년 MBC 보도국장 재임 중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다가 친정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을 방송국에서 떠나게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새누리당 입태의 후보를 누르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당선됐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해남·완도·진

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당내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박 당선인은 두 번째 도전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것이다.

첫 도전 당시에는 본선 출전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당은 뉴스 앵커와 ‘100분 토론’ 진행자를 지내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박 당선인을 붙잡아두고자 총선 선대위 홍보본부장직을 제안했고 박 당선인도 이를 받아들여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미디어 특보를 거쳐 캠프 공동대변인으로까지 활약한 박 당선인은 이 기간에 ‘정치인’ 박광은의 입지를 다지며 차분하게 재도전의 기회를 기다렸다. 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는 잠시 당과



멀어지는 듯했으나 지난해 5월 김한길 대표 취임과 동시에 홍보위원장에 임명돼 60년 민주당 역사에서 최초로 당의 상징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두지휘한 뒤 올해 초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선 승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단독 회동에 배석했던 그는 지난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을 알리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사회를 본 덕에 자신을 스스로

‘통합 대변인’으로 부른다.

정치사에 남을 굵직한 두 번의 단일화 과정을 바로 옆에서 함께한 박 당선인은 김한길 대표와 당내 최대 주주인 ‘친노무현 세력’의 대표격인 문재인 의원의 의중을 두루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적이었다’고 할 만큼 온화한 성품으로 당내 의원들과도 교분을 쌓아온 박 당선인이 원내에 들어오면 대립이 심한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 간 소통의 장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의 원내진입으로 당내 MBC 출신 현역의원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용래, 신경민 의원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영,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받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차곡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8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총도달액 장학금 소파기 500기 2,400만원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이병 안두 경 전무 하현 춘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9,338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연세 장(예)금 금리 연 3%)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